

목포시 조직 개편 '기능 중심' 재배치한다

유사기능 통폐합 통해 협업 강화 '맛의 도시'·'SNS 홍보' 팀 신설 인력 운영·조직 효율성 높여 11월 시의회에 입법 상정

목포시가 주요 현안사업의 역동적 추진을 위해 기능중심으로 조직을 재배치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11월 시의회에 입법 상정한 조직개편안과 관련 "조직을 늘리기 보다는 현 조직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직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개편하고 신

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합리적 조직과 인력 반영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번 개편은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유사 기능을 통폐합해 조직의 효율성도 높인 게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핵심사업 업무량이 방대한 관광경제국이 '관광문화체육국'과 '경제산업국' 등 2개국으로 분리된다.

이는 1000만 관광객 실현을 위해 문화예술 콘텐츠를 관광전략과 접목할 필요성이 대두돼 관광과 문화예술 업무를 동일 국 산하에 배치해 업무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환경관리사업단과 상하수도사업단이 통폐합돼 '환경수도사업단'으로 재탄생한다. 이는 도시 환

경분야와 상하수도 분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기획문화국은 다시 기획관리국으로 환원된다.

과 단위 개편으로는 기업유치실이 기업유치과로 명칭이 바뀌어 부시장 직속에서 경제산업국 소속으로 전환된다.

특히 관광과 내에 '맛의 도시'팀과 공보과 내에 'SNS홍보'팀을 신설해 '맛의 도시 목포 브랜드화'사업 등 민선7기 김종식 시장의 역점시책에 힘을 실게 된다.

이에 반해 관광과 관광마케팅팀과 축제팀이 통합돼 '관광마케팅'팀으로,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과 조경관리팀이 통합돼 '도시경관'팀으로 거듭난다.

현재 타 시군의 경우 축제 전담팀을 두기보다는 관광과나 문화예술과 팀 내 일부 업무로 축제를 추진하는 추세이고, 도시경관 분야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도시디자인과 조경영무를 통합하게 됐다는 게 목포시 인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안사업 추진 조직도 기능조정을 통해 강화된다.

우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기획예산과 지역발전팀을 정책개발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문화예술과의 어린이도서관 운영팀을 도서관운영으로 확대 개편해 어린이도서관은 물론 시립도서관, 영어도서관, 작은도서관을 모두 총괄하도록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는 민간 위탁중인 어린이도서관의 전담 필요성이 낮아진데 따른 조치다.

현재 기획문화국 문화예술과와 자치행정복지국 교육체육과는 소속이 관광문화체육국으로 변경된다.

이에 관광문화체육국에는 관광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문예시설편리과, 체육시설편리과, 목포자연사박물관 등 6개과를 두고, 경제산업국은 지역경제과, 기업유치과, 일자리청년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정책과 등 6개과로 짜여진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으로 목포시 조직은 현재 9국 2실 43과 237팀에서 9국 1실 44과 237팀으로, 1개실이 감소한 대신 1개 과가 늘어 변화는 없다.

'무궁화 전문화가' 박재배 화백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장관상

무궁화 전문화가인 정정 박재배(74·사진)화백이 보건복지부와 KBS한국방송, 사회복지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2019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박 화백은 40여년간 오로지 무궁화 전문화가로 활동하면서 군·경·민 각종 단체에 지금까지 4920여점의 무궁화 작품을 기부해 왔다.

또 무궁화나무 보급과 사회봉사활동 등 재부 기능을 공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 화백은 대한민국미술대전 한국화 구상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은 원로작가로 현재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자문위원과 한국무궁화작품보존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박 화백은 2009년 대한민국 국가상징선양 국무총리표창과 대한민국 전통 무궁화 문화 명장에 선정되기도 했다.



목포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6년여 만에 완공됐다. 영산강변쪽 담개 씨워진 부분이 증설된 부분.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6년여 만에 완공됐다. 영산강변쪽 담개 씨워진 부분이 증설된 부분.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 6년 만에 완공

296억 투입, 1일 2만2000㎡ 처리

목포 옥암·남악지구 인구증가에 따른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지난 2013년 5월 착공한 이후 6년여 만에 완공됐다.

296억원(목포시 129억6900만원, 전남개발공사 166억8700만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번 사업으로 하수 처리용량이 기존 1일 1만 2000㎡에서 2만2000㎡로 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악 하수처리장에서 하루 2만 2000㎡의 하수가 처리돼 1만2000㎡는 바다로 방류되고 나머지 1만㎡는 삼향천 하천 유지용수로 사용된다.

이번 증설 사업으로 침사지와 유입펌프장 1동, 생물 반응조 2지, 이차 침전지 4지, 여과지 및 방류펌프장 1동, 전기실 등의 시설이 확충됐다.

시 하수과는 지난 8월부터 시운전을 들어가 이달 들어 방류수 수질분석까지 마쳤다.

수질분석 결과에 따르면 COD 6.8mg/l (보존수질 12.7/ 법적 방류수질 40이하), SS 0.5mg/l

(2.6/ 5이하), T-N 6.5mg/l (9.9/ 10이하), T-P 0.13mg/l (0.35/ 0.5이하)로 나타났다.

서일정 목포시 하수시설팀장은 "수질 검사 결과 보존수질과 법적 방류수질 기준보다 모두 낮게 나타났다"며 "인구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하수처리는 물론 하수관련 민원들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하수과는 이번 증설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신도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남악 하수처리장에 대한 악취방지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 사업에는 국비 6억을 포함해 총 12억원(목포시 2억6000만원, 무안군 3억4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침전지(6곳, 239㎡)에 상부 담개를 설치해 악취를 막고, 생물 반응조(4곳, 438㎡)에 탈취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골자다.

시 하수과는 실시설계 용역과 전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사항 이행을 거쳐 12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목포시 으뜸맛집 선정 잡음 없앤다

법적 근거 마련 입법예고

목포시가 으뜸맛집 지정과 관련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목포시는 "그동안 명확한 기준과 규정이 없어 일각에서 잡음이 있었지만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입법예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으뜸맛집에 대해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의 맛, 서비스, 향토성, 위생, 분위기, 영업철학 등이 우수한 업소'라고 못 박았다. '조리를 하지 않는 음식점은 지정대상 아니다'는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한 셈이다.

특히 맛집 선정위원회를 통해 맛집 지정기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또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선정 당시 주매뉴가 변경된 경우, 최근 1년 내 3회 이상 시정 또는 시설개선 명령을 받은 경우, 영업장 변경이나 폐업 등 6개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정을 취소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고, 임기는 2년에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추천 의원, 식품·외식·관광 관련 학계 및 전문가, 요리 전문가나 맛 칼럼리스트 등 전문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 등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목포시가 으뜸맛집 선정과 관련 명확한 규정과 기준을 정한 조례를 제정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나섰다. 지난 4월 열린 으뜸맛집 헌판식 모습.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외압 등으로 인한 '부당한 혹은 부적절한' 선정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시는 지난 14일까지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다음 달 개최하는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광과는 28일 내년도 맛집을 신청한 142개 업소를 대상으로 '2020년 으뜸맛집'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

목포시 관광과 관계자는 "지난해 설문과 실태조사만으로 선정하는데 따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신청토록 하고, 블라인드 심사 등을 도입했다"면서 "평가는 분야별 전문가 19명이 참여한 선정위원회가 맡고 12월까지 선정 작업이 완료되며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2019정읍 대한민국의 VR·AR 체험박람회

2019.10.26(토)~27(일) 10:00~17:00 정읍실내체육관

프로그램
전시프로그램 VR, AR 및 콘텐츠 전시와 무료체험
상시프로그램 릴레이 스탬프 / 미래산업체험관 / 보드게임존

10/26 미스트롯 '정다경' 축하공연,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현장대회
10/27 전북 정읍시 드래곤즈컵(철권 토너먼트)

주최: 정읍시 후원: 전라북도 주관: (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